

로버트 바노이 (Robert Vannoy), 주요 선지자, 2강

이사야 1-2:4

다. 이사야서의 구조

1. 이사야 1-6장 심판과 축복

우리는 A., “선지자 이사야” 를 보았습니다. B., “이 책의 역사적 배경” ; 그리고 C. 지난 시간의 “책의 구조” . 우리는 이제 이 섹션의 구조 내에서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1-6장은 다소 일반적이지만 심판으로 시작하여 다가오는 축복의 간략한 섹션으로 끝나는 세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은 1:1-2:5이고 축복 부분은 2:1-4입니다. 그리고 2:6-4:6, 축복 부분은 4:2-6; 마지막으로 5:1-6:13, 축복은 6:1-13입니다. 이제 1-6장을 살펴보면서 전체 부분 자체보다는 축복의 짧은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2:1-4에 도달하기 전에 심판의 부분인 첫 번째 부분인 1:1-31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부분의 시간을 2:1-4에 보내고 싶습니다.

이사야 1:1-2 - 기소 및 신명기 1-6장의 첫 부분에서 1:1의 소개 구절 다음에 이사야가 시작하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용어입니다 . 2절에서 그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게 당신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이전에 그런 종류의 용어를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나는 모세가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할 것인지를 듣거나 알아보기 위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는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그것은 언약적 용어를 강하게 연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4:26을 보십시오. 신명기 4장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민족들 가운데 흘으실 것이다.” 즉,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또는 신명기 30장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느니라. 이제 너와 네 자녀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신명기 32:1에는 또 다른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 이사야서의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 분기에 아모스서를 통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선지자들이 히브리어 용어 *인 베히트* (계약)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계약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약은 후기의 개념이고 초기 선지자들이 그 용어를 말하지도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비판적 생각은 그들이 언약적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친숙함을 평가하는 유효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그 언약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언약자료는 세계관과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야가 거기서 어디로 가는지 주목하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자녀를 양육하여 키웠으나
 그들이 나에게 반역하였느니라.” 반란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파샤(pasha)* 이다.
 . ‘파샤’는 원래 정치권에 속했던 용어다. 이는 법적 관계를 깨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 법적 관계를 맺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EJ 영은 배은망덕의 흉악함은 그 나라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의 나라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버리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자녀를 키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들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영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에 종교의 천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유대 민족 사이에서
 이러한 위대한 종교적 개념의 발전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종종 유대 기업의
 성격 또는 무언가에 내부적으로 간주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그 분야의 성과를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의 말씀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웠으나 그들이

나에게 반역하였느니라.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합니다. 내 백성은 이해하지 못한다.” 야훼를 종주국으로 인정하고 조약 규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알다” , *야다라*는 용어의 언약적 의미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 이는 또한 언약적 의미를 지닌 용어이기도 하다.

이사야 1:4-18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아, 범죄한 나라요, 죄악을 진 백성이로다.” 그리고 이 장의 나머지 대부분에는 기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약의 정책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선지자는 주님을 기소하기 위해 백성에게 오는 사자입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맺었으나 너는 나를 버렸느니라. 장을 따라 내려가면 그것이 1장의 중심 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멸시하며 그에게 등을 돌렸느니라.”

11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그 많은 제물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번제물과 숫양과 살진 짐승의 기름이 넉넉합니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제사에 반대했으며 근본적으로 의식에 반대했다고 말하는

오래된 비평가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이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는 유대 민족의 제사 의식을 비난합니다.

12절, “ 네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올 때에 내 뜰을 짓밟는 일을 누가 네게 요구하였느냐? 쓸데없는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우리가 이전에 논의한 것처럼 문제는 의식이나 희생 그 자체가 아니라 확실히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죄하시는 이유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펴서 기도하면 내가 내 눈을 가리워 너희를 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네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고, ‘의례만 행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봉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단지 어떤 희생을 치르는 의식적인 수행을 원하십니다. 그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족할 수 있지만, 희생을 치르기 위한 회개와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6절에서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라. 내 앞에서 너희 악행을 없애라. 나쁜 짓은 그만하고, 옳은 일을 하는 법을 배우세요!” “올바른 일을 배우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언약적이다. “의를 행하기를 배우라”는 것은 성약의 의무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권이 확립되었을 때 사무엘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언약 갱신 의식의 맥락에서 백성들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가르쳐 선하고 의로운 길로 행하도록 하리라” (삼상 12:23). 선하고 의로운 길, 언약의 길. 여기서 이사야는 “의를 행하기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8절은 “여호와와 보시기에 정직과 선량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요 주제는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입니다.

이사야 1:18-20 함께 변론하라는 호소 이제 18-20절은 함께 변론하라는 호소입니다. 다시 한 번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1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성적으로’는 사건을 논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법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건을 논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를 논해 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언약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비록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이 회개가 있든 없든 일종의 용서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다음 구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 너희가 즐거 순종하면 땅의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저항하고 반역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옵션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는 있지만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보세요, 여기에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다른 용어로 된 동일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생명을 선택하거나 죽음을 선택하십시오 . 축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를 섬기면 복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떠나 그에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두 가지 옵션이 동일합니다. 너희가 즐거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축복과 저주 사이의 선택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만일 너희가 거역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이 나라에 회개가 필요함을 촉구합니다.

이제 1장 심판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남겨볼까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장이 기소로 시작하여 이스라엘 앞에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1장 2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손을 돌려 너를 치겠다. 내가 너희 찌끼를 철저히 제하여 버리고 너희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리라.”

이사야 2:1-5 칼을 보습으로 바꾸다 2장으로 가보자. 1장에 예언된 심판 이후에 올 축복의 부분이다. 2장 1-5절의 예언을 읽어 보자.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것은 이러하니라.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 중에 굳건히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에 높이 솟아 모든 나라들이 그리로 몰려오리라 많은 백성이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리로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사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게 하시리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나라들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민족의 분쟁을 해결하시리라.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며 가지치기용 후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위해 훈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라 야곱의 집이여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 행하자.” 첫 번째 구절은 단순히 서론이기 때문에 예언의 핵심은 실제로 세 구절뿐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결론적 권고이다. “야곱의 집이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그러므로 여기 오는 축복에

대한

예언의 핵심은 바로 2절, 3절, 4절입니다 . 미가 4:1-5 평행 이제 지난 분기를 읽으셨듯이 이 예언은 미가 4:1-5과 거의 동일합니다. 미가를 보면 거의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4절에서 말하는 평화의 때를 더 자세히 묘사하는 추가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습이 되리니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대적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위하여 훈련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미가를 보면 그 직후에 미가 4장 3절에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미가서 4장 4절을 주목하십시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각 사람이 거기 있는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며, 이 평화로운 때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게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권고는 이사야의 권고와 비슷하지만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미가서 5절은 “ 모든 민족이 각기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걸을 것임이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따르라는 참으로 권고입니다. 그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따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무궁토록 따를 것입니다.

나는 미가서와 이사야서 구절 모두에 대해 논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예언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다소 일반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의, 또는 정의의 때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상에서는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인 평화와 안전의 시간입니다. 미가 문맥에서 미가 4장 1절이 실제로 미가 3장의 끝에서 바로 이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미가서 3장 끝에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임박할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0절은 “그들이 피로 시온을 건설하며 죄악으로 예루살렘을 건설하느니라. 그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 제사장들은 댛가를 위하여 가르친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이 밭 처럼 갈아지리라” 고 했습니다 .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 언덕은 수풀이 무성한 둔덕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다. 그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일은 미가와 이사야 시대(기원전 586년) 이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가 3장이 바로 4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은 “그러나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건히 세워지겠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높아지겠고 ; 사람들은 그곳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열방이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리로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멸망되겠지만 장차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땅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며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가 오리라 . 문맥에서, 특히 미가 예언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루살렘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이 외적인 평화와 안전의 때,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를 묘사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만 하실 때가 아닙니다. 위험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리고 사람을 두렵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위험 속에서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이 없는 때이며,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말씀의 중심지가 될 때이며, 땅에 정의가 세워지고 민족들 가운데 평화가 있을 때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며,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제 이것들은 단지 일반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종말론적 관점의 차이와 관련하여 많은 차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물론 이 구절을 보고 다소 다르게 해석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해석가들이 있습니다. 나는 몇 분 후에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를 이사야서 2장 2절의 첫 번째 문구, 즉 “마지막 날에” (히브리어로는 *아하릿 하야밈*) 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 히브리어로 “마지막 날에” 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라는 문구를 접할 때 종말론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그 용어 자체가 종말을 가리키는 종말론적 용어인 전문적인 용어라고 즉각적으로 가정 합니다. 단순히 용어 자체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1장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야곱이 열두 지파에 대해 축복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렀다. ’ *아하릿 하야 밈* ,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 다음은 주로 구약 시대에 성취된 다양한 지파들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 그 용어는 종말론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미래에, 다가올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은 우리가 모세의 축복을 받는 부분과 매우 유사합니다. 신명기 31장 29절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완전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떠나 재앙이 너희에게 닥칠 줄을 내가 아 노라. 너희가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손으로 한 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진노를 격발함이라.” 그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 언약 아래 있는 여호와에게서 돌아서면 저주가 있을 것이니 이는 장래일이라. 그것은 종말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구 자체의 사용법은 문맥에 따라 미래 시간이 어느 정도 표시되는지 결정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맥에 따라 어떤 구체적인 미래 시간이 지시되고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미래에”로 번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끝까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5페이지, 5페이지 하단을 보면 인용 모음이 있습니다. Harris가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신학적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일반적인 미래를 언급하는 “마지막 날”인 아하리트 하야뎀 (*aharit hayamim*) 이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시간의 마지막 부분인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이 기사의 필자는 이 문구가 일반적으로 단지 일반적인 미래를 언급한다고 다른 곳에서 언급합니다. 나중에 Harris가 6페이지

상단에서 해석은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 문구는 최후의 *종말*에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든 종말론이 미래이지만 모든 미래가 *종말*이나 종말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해당 신약성서의 문구는 종종 일반적인 미래를 언급하며 반드시 마지막 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신약의 교회가 스스로를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1에 언급된 위험한 때는 한정 없는 미래에 대한 일련의 경고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하단에 있는 오스왈트는 히브리인의 마음이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에 관해 흥미로운 진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사야 2장 2절에 “장래에”라고 말하는데, 그 구절을 그가 번역한 방식입니다. “장래에”는 문자적으로 “이 날들 이후에”를 의미하는 문구를 번역한 것입니다. *봐*, *아하릿 하얌밈*은 “그 날 이후”를 의미합니다. *아하릿* ‘이후’ 또는 ‘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우리처럼 미래를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후퇴하므로 과거가 그들 앞에 있고 미래가 그들 뒤에 있습니다. 글쎄요, 그는 우리가 미래를 우리 앞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지만 히브리인의 마음은 과거를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미래는 그들 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향점은 과거,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가 그들 앞에 있었다. 미래는 그들 뒤에 있었다. 적어도 그것은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그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구의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이 문구는 반드시 천년왕국이나 심지어 그 이후의 기간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이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기타 여러 참고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이 문구가 더 기술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마지막 날에”가 종말론적 맥락에 있어 종말 을 나타내는 다른 많은 참고 자료가 있다고 말합니다 . 따라서 7페이지 상단에서 중요한 것은 문맥을 평가하여 해당 문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단지 천년왕국 시대만을 언급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대략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은 교회시대와 관련될 수 있다.” 그것은 전체 구절(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이 해석되는 방식에 대한 또 다른 논의를 불러일으키는데, 나는 여기서의 용어에만 기초하여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 구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큰 질문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기술적인 용어로서의 “마지막 날” - EJ Young [Time between the Advents]-

- 무천년기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용어를 기술적인 용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EJ Young을 통해 이를 설명하겠습니다. EJ 영은 무천년설주의자이다. 즉, EJ Young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믿지 않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EJ Young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정의와 평화의 조건을 확립하실 미래의 기간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이 지상 시대에 적용한 “왕국 구절”을 보다 상징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 교회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만들어내는 조건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용 모음집 7페이지의 페이지 하단에서 Young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구는 종말론적입니다. 후기가 오면 모든 역사가 지향하는 완성이자 목표인 메시아가 나타날 것입니다. 보스를 참조하세요. Vos의 주장은 옳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Vos와 동의하는 Young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구는 엄격하게 종말론 분야에 속합니다. 그것은 종말론의 집단적 측면과 관련이 있는데, 그 범위는 탄력적이고 위치는 움직일 수 있다. 신약성서는 이 기간이 말세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시대의 종말이요 시대의 끝이다. 마지막 부분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말하는 것은 당신이 여기서 재림 사이의 시간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이다. 따라서 이 예언의 내용은 재림 사이의 기간에 성취될 것이며 그는 그것을 그 기간에 대한 전문 용어로 받아들입니다.

8페이지, 페이지 상단의 처음 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세 문단 중 처음 두 문단은 영이 말한 98페이지에서 나옵니다. “이 문구가 기술적인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게 됨을 보여주는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메시아의 구원이 성취될 당시의 구약성서에서는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신약성경은 이 종말론적 의미의 문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는 시대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적용합니다.”

그가 제공한 참고 자료를 살펴보면 “마지막 날”이라는 용어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여기서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성 조항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교회 시대 이후에 시작될 천년왕국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묘사된 축복은 말일에 일어납니다. 천년왕국이 영원한 국가의 일부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마지막 날의 일부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예언은 그것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는 “천년왕국이 영원한 국가의 일부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국가의

천년왕국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까? 나는 그것을 영원한 상태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영원한 상태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전천년설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재림하실 것이며 그 재림은 그 이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후천년설의 관점에서는 복음의 확산이 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그 문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문단에서는 “말세”라는 표현이 의도하는 시대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된 기독교 교회의 시대이다.

이제 인용문의 9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영은 “이 구절은 해석하기 어렵다. 그것은 묘사된 축복이 후기에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Boettner 와 다른 사람들 의 천년왕국 이후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 보다 로드릭 캠벨, *이스라엘과 새 언약* . 동시에 다른 구절에서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Boettner(그의 훌륭한 책)와 같은 일부 사람들은 세상이 상대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단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구절은 상대적인 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합니다.” 영이 실제로 그 자신의 결론에 도달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이 절대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일에, 재림 때에 죄가 제거될 때 우리는 약속된 모든 축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를 찾으려는 흥미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성취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죄가 제거되고 완전히 성취되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어렵습니다.” 라는 그의 다음 말을 주목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어려움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에 충실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후천년설 해석은 현 세상의 악한 성격, 즉 끝까지 지속되는 악을 강조하는 구절들을 적절하게 정의하지 못합니다.” 나는 영의 말에 동의한다. 복음의 확산을 말하는 후천년설은 평화와 정의가 확립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견해는 마지막 때에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며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조화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마태복음 24장 참조). 따라서 저는 후천년설 관점에 대한 영의 비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H 자신도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는 상자에 자신을 가두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만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성취될 예정이라면 그것은 바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에서 성취되고 있습니까?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는 “지금은 완전히 이행됐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고 답했다. 원칙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완전한 성취는 아직 미래, 즉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강림 사이에 그것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더 나은 옵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에 주목하세요. 이 *아하랏 하야밈*은 이사야 2장 2절의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처럼 그것을 재림 사이의 기간에 대한 기술적인 용어로 받아들인다면, 전천년설 해석은 배제됩니다. 왜냐하면 재림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술적인 용어로 취하는 것만으로도 전천년설 해석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천년왕국주의자라면 그것을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구절이 원칙적으로는 성취되었지만 실제로는 성취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Young이 하는 일입니다. 후천년설주의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태복음 24장 6절과 같이 전쟁이 끝까지 계속된다는 구절을 조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알다시피, 그것을 재림 사이의 시간에 대한 기술적인 용어로 취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전천년 주의자들은 그것을 재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대한 기술적인 용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 당신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전천년설을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어떤 일에 적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잠시 쉬고 다시 돌아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찬들러
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초기 편집자: Carly Geiman
Ted Hildebrandt의 대략적인 편집
Perry Phillips 박사
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 가 다시 해설함